

뛰어난 경제성... 편리한 주차... 효율적 주행으로 출퇴근에 '딱'

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복잡한 도심에서 교통체증 혹은 애매한 거리에 위치한 출퇴근길은 언제나 걱정거리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기피현상까지 더해져 자동차 업계에서는 경제적이면서도 뛰어난 기동성으로 단거리에서 최적화된 초소형 전기차가 출퇴근 대중교통의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

초소형 전기차는 저렴한 구매 비용과 주차, 유류비와 같은 유지비용이 적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나 출퇴근용 세컨카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 역시 부담없이 구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여기에 이전과 달리 넓어진 초소형 전기차 선택지와 상품성 개선, 판매망 확대 등이 더해져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국내 소형 전기차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르노의 초소형

고객만족도 조사서 73% "실용성 높아" 구매보조금 활용 380만원에도 구매 220V 가정용 일반 플러그로 완충

트위지 고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 이상이 일 평균 30km이하를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번 충전으로 60~70km 주행이 가능한 트위지가 도심 출퇴근은 물론 비즈니스, 쇼핑 등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 전기차 트위지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경제성을 인정받으며 이미 배달, 경비, 시설 관리용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어 경제적인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트위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트위지 구매 고객 중 약 73%가 높은 실용성을 이유로 지인에게 추천할 것이라 응답해 구매 후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증명됐다.

여기에 트위지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는 가격의 경우, 구매보조금 제외하면 라이프 트립 1330만원, 인텐스 트립 1430만원이지만 르노삼성자동차의 현금 할인과 지자체별 구매보

조금 혜택을 받으면 최소 380만원(청주시 900만원 지원)에도 구매가 가능하다.

또 르노 트위지는 전기차 구매 시 가장 우려되는 충전에 있어 높은 경제성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트위지는 220V 가정용 일반 플러그로 3시간 30분이면 완충이 돼 전용 충전소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충전 비용도 따져 보면 일반 전기차 반값인 약 600원(일반가정 요율 1kWh당 100원 기준)에 불과하다.

트위지 고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 이상이 일 평균 30km이하를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번 충전으로 60~70km 주행이 가능한 트위지가 도심 출퇴근은 물론 비즈니스, 쇼핑 등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트위지는 길이 2338mm, 폭 1237mm, 높이 1454mm의 크기로 일반 자동차 주차공간에 석 대를 주차할 수 있어 도심 속 주차난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작은 몸집답게 민첩함까지 갖추고 있어 꽉 막힌 출퇴근 교통 혼잡을 피해 좁은 골목길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절약이 가능한 효율적 주행을 경험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U+,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박차

(Gbps)

장비 협력사와 홈서비스 계약 확장 기준 1551억 규모서 2710억으로 3년간 매년 900억 규모 장비 투자

LG유플러스는 국산 장비 협력사인 유비쿼스, 다산네트웍솔루션즈와 홈서비스 장비 단가계약 규모를 기준 1551억원에서 271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2018년 12월부터 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유선장비인 '스위치'와 'E-PON', 홉단말을 LG유플러스에 제공해 왔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고속 인터넷 주력 서비스를 1기가에서 10기가로 확장키로 하고 이에 맞춰 홈네트워크 중장기 투자 규모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두 회사와의 장비 계약품목·수량·금액을 기존 대비 175% 확대하는 한편, 계약기간도



유비쿼스 관계자가 LG유플러스에 공급하는 10기가 인터넷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2021년 11월에서 2023년 5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향후 3년 동안 매년 900억원 규모의 장비구매 투자가 이뤄진다.

10기가 인터넷은 최대 10기가비피에스(Gbps) 속도를 낼 수 있는 유선 네트워크 서비스로,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데이터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LG유플

러스는 이번 계약 갱신을 통해 10기가 인터넷 장비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을 위해 3월부터 동반성장펀드를 75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납품대금 조기 지급 제도도 최대 700억원 규모로 실시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택배 하차 자동화·로봇 팔레타이징 기술 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사업' 사업자 선정

'로봇이 박스 쌓고, 택배 내리고...' CJ대한통운이 택배 하차 자동화 기술과 로봇 팔레타이징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물류 자동화에 한발짝 더 다가선다.

CJ대한통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인 '로봇산업핵심기술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CJ대한통운과 중소기업, 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할 과제는 '로봇을 활용한 간선화물 물류 운송 차량 하차 작업 시스템 개발'(하차 자동화 기술)과 '다양한 패턴 및 무작위 순서로 공급되는 박스 물품 분류용 로봇 팔레타이징 시스템 개발'(로봇 팔레타이징 기술)이다.

우선 하차자동화 기술은 간선화물차에 벌크 형태로 쌓여 있는 박스, 비닐 파우치, 마대 등 다양한 형태의 화물을 인식하고 피킹 및 운반할 수 있는 하차



CJ대한통운은 TES물류기술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로봇팔, 로봇을 이용한 팔레타이징 기술과 하차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국책과제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을 끝낼 계획으로 STC엔지니어링과 성균관대가 함께 한다.

로봇 팔레타이징 기술은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팔레트 위 박스 적재 업무를 로봇과 비전을 이용해 무인화로 소터 가동률을 높이고 센터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개발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다. 여기에는 주관기관인 씨엔아이와 함께 가치소프

트, 성균관대,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CJ대한통운은 이들 시스템과 장비 개발을 위해 여러 물류센터에서 시뮬레이션과 현장테스트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현장도입 촉진과 실효성 향상을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개발된 기술은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가장 먼저 도입하고, 해외의 글로벌 택배 사업장까지 전파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코로나19에 맞서는 모든 분들께 감사"

LG전자 美 타임스퀘어에 감사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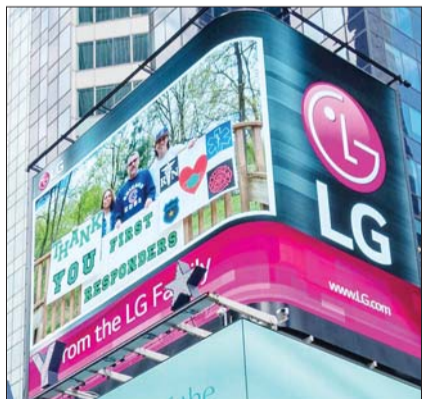
LG전자가 미국 뉴욕에서도 코로나19와 맞서는 사람들을 향한 감사를 전했다.

LG전자는 4일(현지시간)부터 뉴욕 타임스퀘어 LG전자 전광판에 '땡큐' 메시지를 방송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지난달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 윤태봉 부사장이 제안한 것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현지 법인 임직원들이 직접 만들었다.

메시지에는 직원들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감사 마음이 담겼다. LG전자는 타임스퀘어뿐 아니라 법인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도 같은 영상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LG전자는 코로나19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인터넷도 이용할 수 없어 위험에 쉽게 노출된 사람



LG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LG전자 전광판에 미국 법인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땡큐(Thank You)'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LG전자

들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미국 이동통신사 티모바일과 함께 뉴욕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1만 대를 전달한 것. 코로나19 성금을 재난구호비영리단체인 팀 루비콘에 기부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

KT, 기업·연구기관에 '유동인구 기반 빅데이터' 90% 할인

코로나19 솔루션 개발 활성화 모색

KT가 코로나19 관련 연구활동 및 솔루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지원책을 내놓았다.

KT는 교육 및 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에 '유동인구 기반 빅데이터(이하 인구 데이터)'를 6월 8~30일까지 최대 90% 할인해 제공하고 7일 밝혔다.

KT 빅데이터 솔루션인 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구 데이터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1년 동안의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전국 주요 시·군·구의 관광분석 빅데이터와 상관분석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할인혜택 대상



KT 직원들이 KT 빅데이터 솔루션인 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구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다. /KT

은 코로나19를 연구하는 학교, 산학협력단 등 교육 및 연구기관과 포스트코로나에 맞춰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다.

교육 및 연구기관은 관광분석, 상관분석 빅데이터를 모두 할인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등은 상관분석 빅데이터를 할인받을 수 있다. 데이터는 연구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T 상관분석 솔루션 서비스 사용 권한을 1년간 제공한다.

KT 측은 코로나19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및 극복방안 연구와 관광업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구 데이터를 할인해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구 데이터 구매는 빅사이트 공식 이메일로 상품내용, 견적 등을 문의하면 된다.

/김나인 기자